

최근 후주의 '에코부다' 라는 신발을 만드는 업체에서 "유리형 디자인에 동양적 가치를 집약시킨 제품"이라며 부처님의 좌상모형을 신발 뒤쪽에 새긴 스포츠화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 회사 웹사이트를 이용한 판촉에까지 나서자 불교국가인 태국정부에서는 후주정부에 대한 외교적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한다.

이 경우처럼 단순히 이익창출을 위한 기업마인드만 가지고 만든 상품은 불교를 폄하하거나 왜곡시키기 일쑤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기업마인드와 불교적 정서가 충돌을 할 수밖에 없다.

최근 불교문화를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불교문화를 상품으로 개발하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왔지만, 사실상 불교문화를 상품화하기 위한 전문인력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유한 불교 정서와 현대인의 정서를 접목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일은 시급한 일임에는 분명하다.

여기에서 조심할 일이 있다. 과연 불교문화상품이 불교문화를 널리 확산시키는 작업의 일환인지, 아니면 불교문화를 상품화하여 이익을 내자는 경제의 논리인지 명확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필자를 감동시킨 장면을 하나 소개하고자 한다. 4년 전 TV서 본 것으로 기억된다.



불자 세상보기

최종석
금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불교문화상품의 조건

내용은 일본의 한 작은 마을에 관한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오로지 '지장보살상'을 조성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나무를 깎고 어떤 사람은 칠을 하고, 다듬고, 운반하고, 판매하고 있었다. 지장보살상의 모양도 제각각이었고 크기도 아주 다양했다. 온 마을 사람들은 행복한 얼굴을 하며 온 정성을 다하여 이 일에 전념했다. 이 곳은 작은 마을이었지만 외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으로 연일 주차장이 가득했다. 이 마을의 불교문화상품은 '지장보살상' 뿐이었다. 열쇠고리 모양에서 저금통 모양의 지장보살

상까지 다양한 색채와 크기로 만들어졌다.

깜짝 놀랄만한 것은 이 지장보살상에 눈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다. 매우 특이한 모습에 흥미를 갖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지장보살상은 현대적 감각이 가미된 모양이었기 때문에 비록 눈이 하나밖에 없어도 좋하지 않았다. 그럼 왜 눈이 하나밖에 없단 말인가?

이 마을에 지장보살을 모시러 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나름대로 원을 세운 사람들이었다. 어떤 사람은 고사공부를 하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담배를 끊으려 하였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나쁜

버릇을 고치려고 했다. 모두 나름대로의 문제를 풀려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집으로 가져간 저금통 모양의 지장보살상 앞에서 아침저녁으로 자신의 원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올린다. 저금통 모양의 보살상이 동전으로 가득 찼으면 그들의 원은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들은 소중하게 모시던 지장보살상을 부처님전이나 아니면 양로원, 고아원 등에 바친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다른 원을 이를 지장보살상을 모셔가기 위해 다시 지장마을을 찾았다고 한다.

문화상품에 스토리가 빠지면 생명력이 없다. 우리도 이런 이야기를 먼저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문화가 상품이 되려면 역시 감동스토리가 있어야 한다. 불교문화상품도 마찬가지다. 불교적 정서와 기업적 마인드가 결합된 아이디어의 창출은 불교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셈이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졌다. 잃을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는 것이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자의 눈

부처님이 오셨다. 그분이 오신 뒤의 시간과 공간은 오시기 전과는 다른 시간과 공간이 되었다. 무명의 어둠이 지배하던 시간과 공간은 사라졌다. 깨달음의 광명이 충만한 시간과 공간 속에 우리들은 살게 된 것이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분이 오신 의미를 기리며 그 환희를 온몸으로 표현한다. 그날이 바로이다. 모든 불자들이 부처님이 밝혀주신 진리의 빛 속에서 참다운 생명으로 살게 된 것을 감사드린다. 다시 한번 불보전의 정진으로 부처님이 가르치신 길을 걸겠다고 다진다. 그날이 바로 부처님오신날이다.

부처님이 오심으로써 불보살의 가피를 받는 세상에 살게 된 감사의 마음도 있을 수 없다. 재앙과 고통의 세상에서 한줄기 빛을 발견한 감사와 기쁨이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와 환희는 한 차원 높은 곳에서 나온다. 내가 바로 부처님을 닮은 참다운 생명으로, 진리를 추구하며 진리에 따르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느낄 때 나오는 감사와 기쁨이야말로 진정한 부처님오신날

오늘 부처님 오셨으니...

을 장엄하는 감사와 기쁨이다. 이러한 마음을 절실하게 눈물나도록 느껴보지 않았다면 아무리 불교를 오래 믿었다 하더라도 진정한 불자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 부처님께 의지하여 자신의 복락을 기구하고, 그 가피력으로 재액을 물리치려는 마음만으로는 느낄 수 없는 감사와 기쁨, 그것을 느낄 때 우리는 비로소 불자이며, 바로 그 시간 거기에 부처님은 오신다. 그리고 그러한 수많은 불자들이 부처님의 뜻을 펴는 그 속에 부처님 세상은 열려가고, 거기에 부처님은 거듭 거듭 오신다.

올해의 '부처님오신날', 2천만 불자들이 항상 품어오던 감사와 기쁨을 '함께' 그리고 '온몸으로' 표현하는 축제가 되도록 하자. 그 감사와 기쁨을 타고 온 누리 모든 중생에게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광명이 전해지도록 하자. 아직도 우리 세계에 짙게 드리운 괴로움과 갈등의 어둠을 모든 불자들이 '우리도 부처님같이'를 외치면서 손잡고 함께 거두어나가기를 다짐하자. 그렇게 부처님같이 살아가는 생명이어서 우리는 "하늘 위 하늘 아래 홀로 높음" 존재이며, 모든 중생들이 "하늘 위 하늘 아래 나 홀로 높다"고 선언하는 그 날이 불국토의 완성이다. 그 날을 하루 빨리 이룩하려는 크나큰 서원에 모든 불자들이 함께하는 '부처님오신날'이 되도록 하자. ■성대용(간곡대 교수)

이렇게 들었다 신용불량

"가난하고 공할 것을 미리 생각하지 못하고, 재물을 가벼이 여겨 사치를 즐기면 가정이 파괴되고 재앙을 부른다." <선생경>

올 1/4분기 신규 개인파산 신청건수와 개인파산자수가 모두 전년 동기대비 3배 가까이 늘었다고 한다. 현재 신용불량자수가 4백만 명을 육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경제활동 인구 5명 중 1명이 최소한 한 문제로 족쇄를 차고 있는 셈이다. 이쯤 되면, 우리 사회가 '신용불량 시대'를 넘어서 본격적인 '가계파산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가정경제 파산이 가정 파탄으로 직결된다는 점이다. 카드 빚에 부모들이 자녀를 버리고, 온 가족이 빚 독촉에 목숨을 마시고 세상을 등진다. 여기에 사회활동의 첫 발을 디딤 청년인구까지도 극심한 경기침체로 제대로 꽃도 피우지 못하고 있다. '그간 씹씹이가 해줬다'고, 또 '네 문 제니 알아서 하라'는 사회적 비판은 이미 설득력이 없어졌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정부가 최근 신용불량자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배드뱅크 운영 전담기구인 한미금융공을 출범시켰다. 개인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개인과 국가가 무절제한 소비에 대한 대가를 특별히 치르고 있다는 뜻이다.

그럼 부처님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천청문경>에 이런 말이 있다. '소욕(少欲)이 최상의 쾌락, 만족은 최상의 부귀다'. 아마도 자급의 신용불량자 문제와 그 원인에 대한 가장 정확한 대답일 것이다. '분수에 맞게 쓰라'는 지극히 단순한 이치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다가온다. 소욕지족(少欲知足)의 미덕이 아쉬운 현실이다.

■김철우(현재부 기자)

특별기고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에 대한 불신과 오해

우선 윤범모교수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불미전은 아마추어의 취미행사에 그쳐서도 안되고, 특정집단을 위한 은밀한 행사이어서도 안됩니다. 그래서 '뭐 그렇고 그런 것'으로 낙인을 찍혀서는 정말 안되겠지요. 창의성에 비중을 두고 시대정신이 담보된 당대의 불교미술을 위한 공모전이 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지요.

그런데 기고문의 제목이 '제20회 불미전 공고를 보고'라고 하였는데, 이를 정리하여 재구성해 보면, '불미전은 격년제로 열리며 불교미술의 맥을 계승하고 저변확대와 신인 등용문의 역할을 하기 위한 것으로 세계에서 유일한 공모전이다. 출판작 중 현대미술(장작분야)은 제외한다.' 이런 공모안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공모안은 교수님의 공모안과는 전혀 다릅니다. 다음이 저희 공모안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한국불교미술의 전통을 계승해 나갈 역량있는 신인을 발굴·육성하고, 불교미술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20회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을 개최하오니, 미술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공모방침- 가. 응모작품은 한국불교미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수 있는 창의성이 풍부한 작품이어야 함. ...'

저희 공모안에 '세계유일'이란 표현은 운영위원과 심사위원을 역임하셨던 교수님같은 분이 어찌 그런 글을 쓸 수 있었습니까? 저의 소견으로는 평론가의 기본 자질은 정확한 판단력에 있고, 그를 뒷받침해 주는 것은 참된 애정과 올바른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애정이 없는 비판은 난도질이고, 올바른 정보에 기반하지 않은 비판은 날조된 명예훼손입니다. 그나마 이에 그치면 다행이지만 상대방이 입을 상처는 어찌 보상합니까? 또 그렇게 잘못된 비판을 근거함으로 인하여, 혹은 그에 감염되어 연쇄적으로 파생될 수많은 불신과 오해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교수님의 문투가 고아한가 전박한

것일 수 없으니, 말씀하신 것처럼 '혼스러운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겠지요? 응모자격 제한은 아예 폐지하여 누구에게나 문호를 개방하였으니, '능력있는 현역작가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도 아니고, 그럼으로써 '전시의 위상을 격하시키'지도 않았겠지요? 또한 작품은 모부분에 전풍이나 현대에나 하는 구분을 없앴으로써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작품 자체의 예술적 품격에 의해 평가받을 수 있도록 주의깊게 배려했습니다. 저희가 발표한 공모안을 결심질로 보았더라도 미술평론가로서, 더구나 불미전의

가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불미전에 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관했다는 점을 문제삼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개인적인 성향과 주관적인 비판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공모안을 꼼꼼이 정확하게 잘 읽어보시고 더 큰 애정을 갖고, 정말로 '제20회 불미전 공모안을 보고'라는 글을 써 주십시오.



심민섭
조계종 총무원 문화국장

불미전 공모안 오해 더이상 없길...

적으로 파생될 불신과 오해'가 벌써 시작되고 있습니다. 전연호님이 쓴 기고문의 경우, 일정 정도 저희와 견해를 같이하는 부분도 있지만 전적으로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아마 저희 공모안보다 윤범모교수의 기고문을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한 문제인 듯합니다. 불미전에 관심을 가진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제20회 불미전'의 공모안을 불신과 오해없이 살펴봐 주십시오. 끝으로 바라옵건대 불교의 사상과 정신이 살아 있으며 예술적 품격을 갖춘 훌륭한 작품들이 많이 출품되어 불미전의 본래 취지와 목적을 원만하게 성취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연대'만평 심민섭



제37차 전국어린이지도자 연수회

개요
1. 일시: 불기 2548년 6월 12일(토) 17:00 ~ 13일(일) 15:00
2. 장소: 속리산유스타운(충북 보은 소재)
3. 주최: 대한불교조계종교연회
4. 주관: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5. 예산인원: 500명
6. 연수참가비:
구분 미리집수 당일집수 제주도,울릉도,군부영 해외거주자
초심자반 50,000원 60,000원 40,000원
어린이와 함께하는 인형극 60,000원 70,000원 50,000원
놀이속의 과학 60,000원 70,000원 50,000원
어린이번외에 활용할 상담 70,000원 80,000원 60,000원
불교대학교를 위한 레크리에이션 50,000원 60,000원 40,000원
* 입금하신 참가비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 재료비 포함가격 * 과목별 대상 인원만 받습니다.
7. 지급 품: 연수자료집, 기념품(휴대폰골드스티커)
8. 개인준비물: 필기구, 세면도구, 간편한 옷
9. 접수방법: 본 회 홈페이지 www.dongja.org 또는 전화 (051)864-4569, 457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일정표
공통과정
<특강> 교재·교구에 부처님 마음을 담자
캠핑활동 분회 교육국
찬불가와 율동 정 유락 공작소리
초심자 과정
지도자가 꼭 알아야 할 부처님 말씀 운성 스님 본회부회장, 대강사주지
초심자를 위한 레크리에이션 최 미 선 9해나라어린이집관장
여름불교학교 준비에서 마무리까지 이수 안 9해나라어린이집관장
부처님 말씀을 담은 교구 만들기 이수 경 동국대 불교 아동학과 교수
심화 과정
어린이와 함께하는 인형극 박 서 영 동화구연강사
놀이속의 과학 조 오 근 광성실고등학교교사
어린이번외에 활용할 상담 정 옥 부산해로위생연구소원
불교학교를 위한 레크리에이션 이 성 훈 신아이벤트실장
박 재 성 9해나라어린이집관장

보 사단법인 한국불교조동선림 법인설립 공고 축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득하고 해당법원에 법인등기 절차를 마쳤으므로 이와 같이 공고합니다.
1. 허가번호: 2004-3(허가년월일 04. 4. 16)
2. 법인명칭: 사단법인 한국불교조동선림(社團法人 韓國佛敎曹洞禪林)
3. 소재지: 서울 용산구 효창동 5-152 원효사
4. 목적: 조동선문(曹洞禪門)의 선맥(禪脈)을 복원하고 불교사상 발전에 기여함.
5. 사업: 1) 조동선(曹洞禪)과 선학(禪學)의 연구개발
2) 불교사상의 포교와 원리 연구
3) 국내외 불교학술 교류사업
4) 조동선학의 교서출판 및 정기간행물 발간
5)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사단법인 한국불교조동선림의 법통(法統)은 구산선문(九山禪門) 수미산광조사(須彌山廣照寺) 조동선문의 개조(開祖) 이엄진철(利嚴眞澈) 조사의 조경(祖庭)인 중국강서성 운거산(雲居山) 진여사(眞如寺) 조동적통(曹洞嫡統) 강서수창파(江西壽昌派) 조동종 제49대 해음승리(海音勝了)선사로부터 사법전승(嗣法傳燈)하고 창종을 선포한 한국조동종 총본산의 운영모체(運營母體)법인으로 일천여년간 단절되었던 선맥을 복원 하였다. 이로써 서천(西天:인도) 87대 동토(東土:중국) 60대 조동(曹洞) 50대의 혈맥(血脈)이 이어지고 정정법계(正傳法系)를 계승한다.
불기 2548년 5월 26일
사단법인 한국불교 조동선림 대표 금선 학봉(今禪 鶴峰) 합장
서울 용산구 효창동 5-152 TEL 02)704-8065, 713-0475 / FAX 02)704-8064